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코로나 19 와의 전쟁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급부상한 트럼프
- ◇ (칼럼)-안전자산 엔의 저주에 걸린 일본
- ◇ (칼럼)-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할까? 한다면 언제?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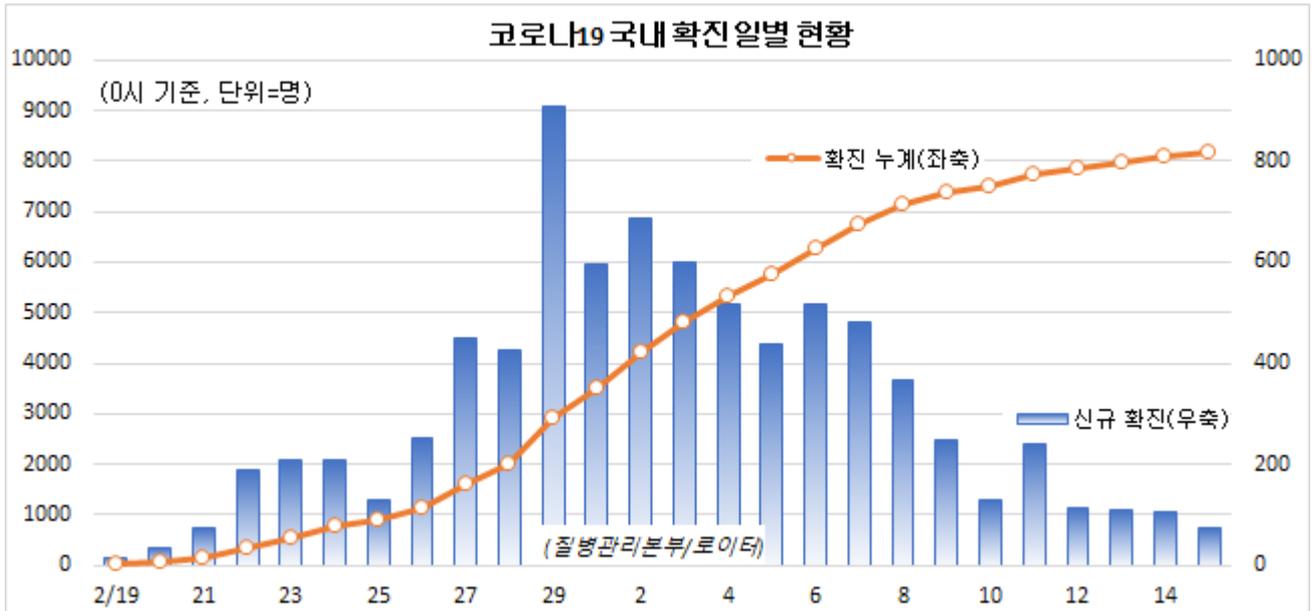
미국의 한 요양시설에서 결혼 60년 된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서로 격리된 채 유리창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데이비드 라이더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1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19.3	-2.2%	-5.2%	-3.5%	유로	1.1105	-1.6%	-0.9%	-2.3%
100엔 대비	1,122.2	0.6%	-5.3%	-4.4%	엔	107.91	-2.4%	0.6%	0.9%
유로 대비	1,345.1	-0.3%	-3.8%	-1.3%	위안	7.0280	-1.3%	-0.9%	-1.3%
위안 대비	172.70	-0.7%	-4.0%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3,185.62	-10.4%	-18.8%	22.3%
코스피	1,771.44	-13.2%	-19.4%	7.7%	나스닥	7,874.88	-8.2%	-12.2%	35.2%
코스닥	524.00	-18.5%	-21.8%	-0.9%	S&P500	2,711.02	-8.8%	-16.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56.94	-11.1%	-17.3%	15.8%
국고채 3Y	1.149%	7.1bp	-21.1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14%	13.2bp	-16.6bp	-40.4bp	미국채 2Y	0.508%	-0.2bp	-105.3bp	-93.7bp
국고채10Y	1.570%	20.0bp	-11.3bp	-26.5bp	미국채 10Y	0.983%	21.0bp	-92.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1.73	-23.1%	-48.0%	34.5%	한국 5Y	40.8bp	5.7bp	19.7bp	-17.0bp
금(현물)	1,529.31	-8.6%	0.8%	18.3%	일본 5Y	35.2bp	9.2bp	17.4bp	-4.0bp
TR상품지수	2,268.41	-2.8%	-8.8%	4.8%	중국 5Y	67.8bp	15.0bp	37.1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16일(월)>

- 기재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17일(화)>

- 한은, 1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2.27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8일(수)>

- 한은,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19일(목)>

- 특이일정 없음

<20일(금)>

- 한은, 2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16일(월)>

- 일본, 1월 기계주문 (8:50)
- 중국, 2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2월 도시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2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2월 소매판매 (11:00)
- 미국, 3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17일(화)>

- 일본, 3월 로이터 단칸 (8:00)
- 호주중앙은행(RBA) 3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9:30)
- 일본, 1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1월 건축생산 (19:00)
- 유로존, 4분기 노동비용 (19:00)
-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
- 미국, 2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2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1월 기업재고 (23:00)
- 미국,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8일)

<18일(수)>

- 일본, 2월 수출입 (8:5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19일)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발표(18:00)
- 유로존, 1월 무역수지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2월 주택착공 (21:30)

<1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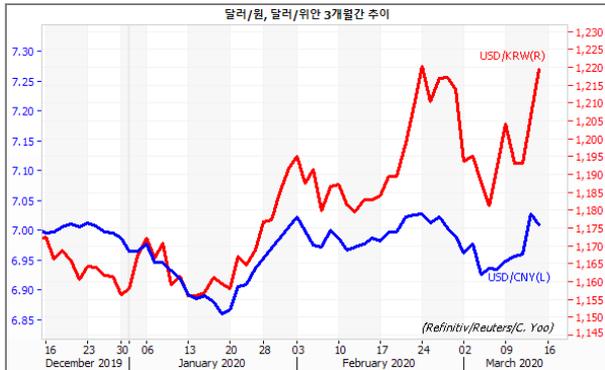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3:0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 일본, 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미국, 4분기 경상수지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3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2월 경기선행지수 (23:00)

<20일(금)>

- 중국, 3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 5년물 (10:30)
- 유로존, 1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23:00)
- 일본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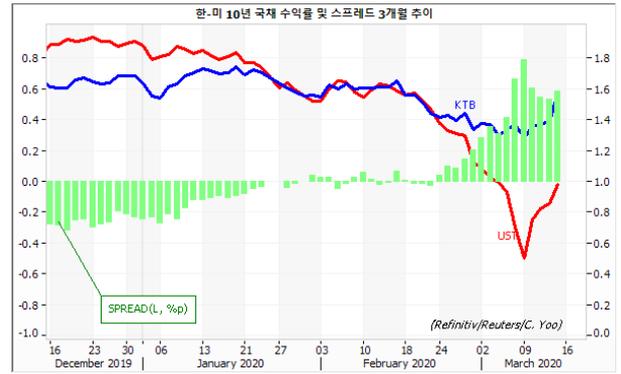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국제 금융시장이 과거 금융위기급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어디로 될지 모르는 '럭비공'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80-1235 원이다.
- 코로나 19 공포가 투자심리를 집어삼킨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각국이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내놓으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 그런데도 정책 무용론이 지속해서 시장 심리를 위흔드는 상황에서 이번 주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는 이후 시장 흐름을 결정 지을 중차대한 이벤트로 꼽히고 있다.
- 미국 기업들의 신용 경색과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연준의 파격적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연준 회의를 전후해 국내외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본은행의 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 확대 여부 등도 주목된다.
- 지난 주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과 실개입을 모두 동원해 달러/원의 전 고점 부근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환율이 전 고점을 상향 돌파한 데 대한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 현재의 시장 상황은 위기인지를 판단해야 할 만큼 시장 여건이 만만치 않다. 극도의 불안 심리 속 역대 시장 유동성이 험거워질 수 있는 리스크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동향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 국내외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저울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는 외인 수급 변화를 주시하면서 최근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연준의 전격 제로 금리 선언과 양적 완화 발표로 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물 금리 방향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연준이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1%p 인하하고 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다. 오는 17일부터 이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 시장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게 연준의 전략이고, 이번에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은 금통위 입장에서 25bp 인하 여부를 놓고 눈치만 보다가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 버린 모습이다.
- 어쨌든 연준의 적극 대응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다.
- 국내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가운데 연준 버퍼까지 생긴 상황이다. 지난 주말 나타났던 원화 자산 전반에 대한 셀 오프가 진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주 초 국고채 10년 입찰이 잘 마무리되느냐가 주목된다.

(칼럼)-코로나 19 와의 전쟁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급부상한 트럼프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의견으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의 싸움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 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시장 패닉을 초래했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에 5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의 연설에 공중 보건 해법은 없었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가득했으며 유럽에서 오는 여행 금지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진단과 치료를 모두 놓치고 있다.

미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불충분하고 혼란스러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을 금지한다고 말했는데, 이후 국토안보부는 13일부터 30일간 유럽 쟁쟁 국가들을 여행한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되며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결벽증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유럽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무역과 화물기"를 자국에 들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뒤 트위터를 통해 반복하기도 했다. 이같은 금수 조치가 취해진다면 경제적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후 급락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와 조치들도 연설에서 빠져있었다. 코로나 19 진단 키트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이는 미국인들의 극히 일부만이 검사를 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특정 지역들은 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검사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또는 정부가 지방 관리들과 병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의 경제 조치 역시 기대에 못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업들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위해 의회에 500억달러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며, 아프거나 격리된 근로자들을 위한 비상 지원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후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양당 의원들이 모두 효용성에 회의적인 급여세 감면안을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데 이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각오와 경제, 의료시스템, 그리고 능력있는 의료진 등에 대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자화자찬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은 말에 못미친다. 시장에 매우 관심이 많은 그는 투자자들의 성과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칼럼)-안전자산 엔의 저주에 걸린 일본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 (로이터)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의 저주를 풀기 위해 더 구분투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은 금과 엔, 높은 등급의 국채로의 매수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속적인 엔 강세는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나 일본 정책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발생했을 때 엔은 초기에는 약세로 반응했다. 양국간 무역 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지난 주 연준이 예상 밖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특히 유가 급락이 전 세계 금융시장 폭락을 이끈 지난 9일 엔 가치는 급등했다. 엔으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몰리면서 달러 대비 엔 가치는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 히타치, 닛산자동차, 파나소닉 등 일본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10일 환율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 아래이고 BOJ가 수년간 자산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정책 옵션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달러 대비 엔을 매도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독 행동은 효과가 없을 것이며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달러/엔 적정 환율은 103 엔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3 가지 중 2 가지를 충족하고 있어 공개 개입을 할 경우 나머지 한 가지 조건도 채우게 될 것이다. 중국의 보복성 통화 절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옵션은 정부연금투자펀드(GPIF)에 의한 은밀한 개입이다. 총 1 조 6000 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GPIF 가 해외 자산 매입을 위해 엔을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6 조 6000 억달러에 달하는 외환시장 일일 거래량을 감안할 때 이 역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일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시장이 잠잠해지는 길 뿐이다. 그래야만 엔으로의 안전자산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아베보다는 구로다의 손에 달려 있다.

(칼럼)-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할까? 한다면 언제?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기준금리가 전격 인하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크지 않다.

지난 4 일로 돌아가 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 일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 깎아 인하한 이후 한국은행도 나름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수정을 하기로 했다. 이 총재 메시지 발표 시점과 관련해 혼란이 있긴 했지만 어찌 됐든 시장에 그 의도는 전달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이후 달라진 여건을 통화정책에 감안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 19 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 총재 발언에는 많은 게 담겼다.

하나는 지난 2 월 금통위 회의 당시 보냈던 시그널의 수거다. 당시 이 총재는 단순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바 있다. 이 총재는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현시점에 '우리도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통화정책 스탠스 수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 19 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추경 집행과 함께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간 협상 결렬로 국제 유가가 1991 년 걸프전 이후 최대폭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한 후 10 일에 회의를 열어 이 총재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 총재는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4 일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면, 10 일에는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은 총재의 10 일 메시지에 담긴 의미

이 총재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지난해 7 월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후 이 총재는 "최근 한두 달간 일어난 대외 여건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급적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금통위 견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을 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이 아무리 급하게 변한다고 해도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이 총재다.

이 총재의 4일 메시지는 '웬만하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2월 금통위 결과를 뒤집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 그렇다면 '금융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10일 메시지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예고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정황상으로도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영두에 둘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서부 유럽과 미국을 강타한 가운데 확진자 수도 전 세계적으로 11만 4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2.9%(IMF 기준)를 기록했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제한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수준의 수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수요를 되돌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기업 부문에 미칠 영향부터 통화정책 완화가 가져오는 시그널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다.

연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데 이어 다음 주 추가 인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19일부터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내달 9일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대) 100bp 내리는 동안 금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를 넘어 '그 후로도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금통위, 굳이 4월까지 기다릴 이유 없어

한은 총재를 포함해 금통위가 만약 금리 인하를 영두에 두고 있다면 굳이 4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

는 상황이다. 3월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순리로 보이는 이유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이달 12일과 26일에 열리는 비통방 정기회의 때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은 정관에 따르면 임시 금통위 회의는 정기회의 이외의 시간에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 정기회의에 기준금리 안건을 추가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정기회의를 마친 후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리적으로 12일과 26일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추경안 통과 시점과 FOMC 회의의 사이 시점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연준이 보름새 최대 100bp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에 FOMC 회의 이후까지 기다리면 한은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후행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경안 통과와 함께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정책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반면 50bp 조정이 아닌 이상 금통위가 굳이 미국보다 앞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만 자극할 수 있으니 '밀려서 했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FOMC 회의 결과 발표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임시 금통위 개최 발표 자체가 금리 인하 발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국내 시장 개장 직전 임시 금통위 소집을 공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모두 시나리오일 뿐이다.

한은 집행부가 4월까지 기다리겠다며 강행 돌파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며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디데이는 얼마 남지 않았다.

(초점)-국채선물 만기 앞두고 '묻지마 포지션 정리' 나선 외국인..원화자산 정리 가속화 우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채선물 만기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도'에 나서면서 원화채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자금 이탈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채권자금까지 유출될 경우 원화자산 전반의 '셀 오프' 우려가 고조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외인, 국채선물 만기 앞두고 '무조건 매도'

13일 개장 직후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 3년 국채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23 톱 하락한 111.28, 10년 선물이 112 톱 하락한 132.66에 출발한 여파다. 뉴욕 주가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미국 국채시장이 강세 마감한 상황에서 국내 채권가격이 급락하자 당혹감을 느낀 운용역들이 많았다.

혼란과 공포는 가격 낙폭이 커지면서 확산됐다. 개장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10년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300 톱 가까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채선물 가격의 자유 낙하를 끌어낸 건 외국인이다.

개장과 동시에 10년 선물 매도에 나선 외국인은 1시간 동안 1만계약 이상을 정리했다. 외국인이 가격을 불문하고 주문을 내놓는 통째로 10년 선물 가격은 날개 없이 추락했다. 외국인은 3년 선물 시장에서도 1만 계약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의문은 17일로 예정된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월 28일부터 국채선물 롱포지션을 쌓아 왔다. 1월 27일 기준으로 16만계약, 1만 4000계약 수준에 그쳤던 외국인의 3년, 10년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는 12월 26만 계약, 8만 7천계약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단기간에 이 정도로 롱포지션을 키운 상황이라면 국채선물 만기까지 정산가를 높였다가 포지션을 정

리하는 게 합리적인데 외국인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고 현 시점에 국채선물 롱포지션을 접는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건 '무조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본부장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며 "장 초반 다들 눈치를 보는 중이어서 호가가 낮았는데 외국인이 치고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팔면 외국인들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라며 "전세계적으로 주요 상품 가격이 급락하며 마진콜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스크가 있는 포지션은 빠르게 접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리얼머니 자금이탈 '카운트다운'..크레딧 시장 관련

시장참가자들은 주식시장의 자본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확대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X 스왑포인트 역전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개장 초 통화스왑(CRS) 1년 금리가 마이너스 16bp까지 떨어지는 등 달러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전세계적으로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국내 주식,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다발로 자금이 이탈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자금운용팀장은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시장에 주문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어제 런던 시장에서 FX 스왑 1X12 주문이 -840 전까지 나왔는데 비드가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오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은지점 트레이딩헤드는 "현재 미국계 은행들 사이에 달러 차입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캐리 포지션 언와인딩이 나오고 있다"며 "캐리 트레이딩의 언와인딩은 수익률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외에서는 현재 크레딧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경우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던 리얼머니들이 자금을 뺏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들이 액션을 취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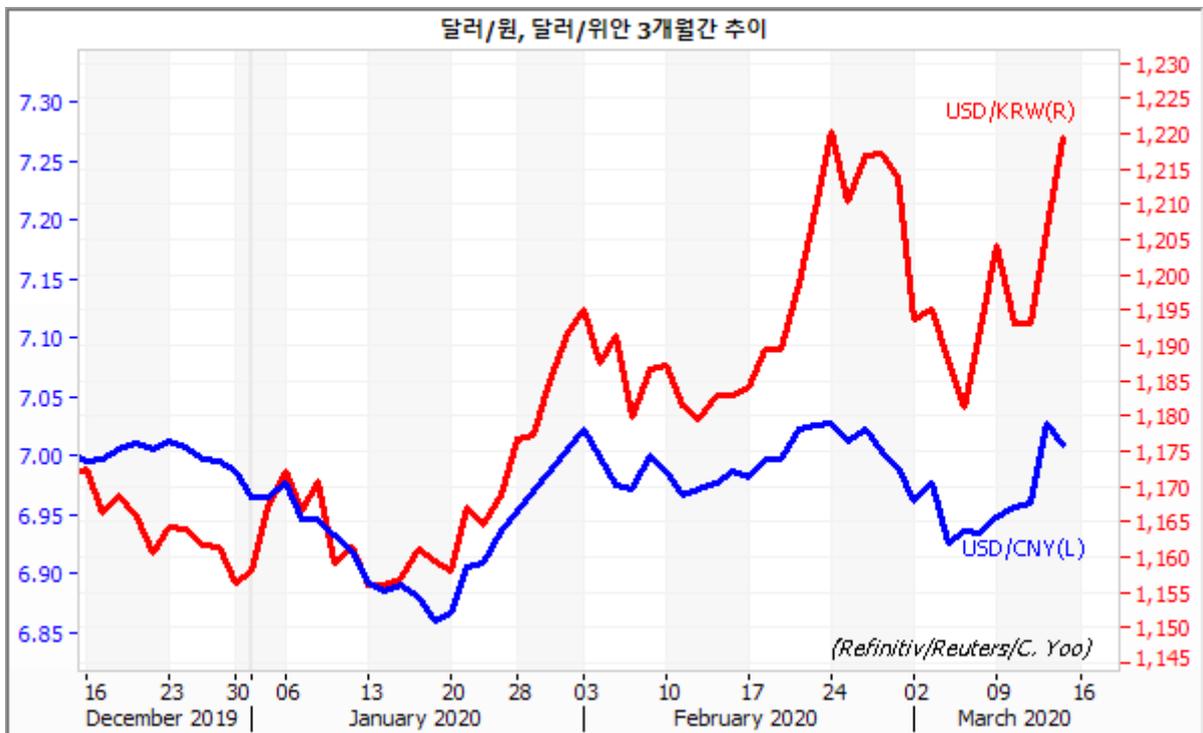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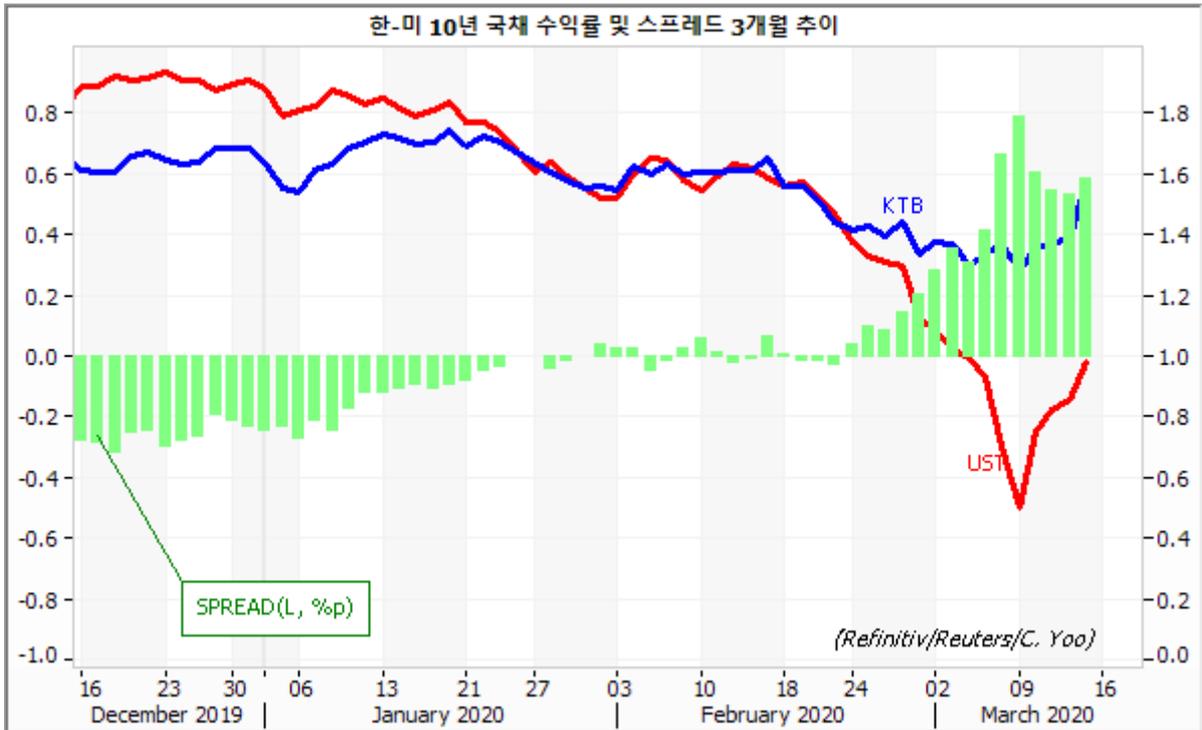
THOMSON REUTER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